

# 합평, 고교 통폐합 '거점고 육성사업' 난관

### 합평여고·학다리·나산고 묶어 적정 규모로

### 중학교 4곳도 추진...주민들은 반대 서명운동

합평지역 고교 3곳과 중학교 4곳을 통·폐합해 1개의 거점고와 중학교 2개 내지 1개로 합치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사업'에 주민들은 물론 동문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합평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농어촌 지역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통·폐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해 출병식을 갖고, 거점고 지점을 전제로 한 공립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추진위는 합평관내 공립인 합평여고와 사립인 학다리고, 나산고 등을 통합해 1개의 공립 거점고로 육성을

고 합평여중과 합평중, 합평신광중, 학다리를 각각 남녀 1곳씩으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해당지역인 학교면과 신평면 주민들이 학교이전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사업은 차질을 빚고 있다. 학다리 중·고교 이전 반대 서명에 이미 15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등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학다리중·고교 이전 반대에 나선 주민 박모(45)씨는 "학교면과 신평면 등 지역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학교를 설립했다"며 "지역 주민들의 피와 땀이 묻어

있는 전통있는 학교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다른곳으로 옮기려 하는것은 있을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모(53)씨도 "수많은 동문들이 사회 각층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 타 시군의 부러움을 받는 등 명문고로도 손색이 없는 학교를 다른곳으로 이전하는것은 학교의 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중·고교 통·폐합 이전을 놓고 지역민의 의견차게 팽팽하게 교차되고 있어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

하고 있는 교육청도 난감을 표명하고 있다.

합평교육청 관계자는"학교면 주민들의 주장도 이해는 하지만 3개 지역의 학교가 합쳐져 신설되는 거점고를 학교면에 신설하는 것은 다른지역 나산고나 합평여고가 학다리고로 흡수되는 느낌이 강해 거점고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합평교육청은 다음달 주민 공청회를 열어 취지를 설명하고 해당 지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합평=황은희기자 hwang@



**암 조기검진 홍보 활동** 목포시 보건소가 27일 목포시의료원 등 35개 병의원 검진의료기관 관계자와 함께 암 조기검진 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소 등은 관내 거주하는 만30세 이상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 이하 지역주민 6만5000여명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해 암 조기검진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목포=고구석기자 yousou@

## 對美 수출용 김가공공장

### 신안천사김, 본격 가동 준비

#### 올 370억 어치 수출 계약

신안군에서 투자유치한 기업인 신안천사김(주)이 공장과 기계설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본격적인 가동에 나서 고용창출과 김 생산 가격상승 등 여러 방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신안천사김(주)는 우리나라 조미 김 생산의 일류기업인 예맛상사가 신안군의 투자유치 노력과 전국에서 으뜸인 신안 김맛에 반해 신안군 압해읍에 세계 최대 시설로 설립한 대미수출용 김가공공장이다. 다음달 시운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제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된다.

신안천사김 주식회사는 미국 코스트코사와 수출 계약을 체결, 올 한해 생산되는 370억원 상당의 조미김을 모두 미국에 수출한다. 생산공정이

정상화되면 유럽 등으로 수출을 확대해 수출액만 74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군의 전망이다.

신안군은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200여명의 고용과 연간 마른김 500만속 이상의 마른김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회사측과 협의, 직원 채용시 지역민을 우선 채용하고 마른김도 신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김만 사용하도록 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시급한 컨테이너 집하장 설치, 운영 자금 확보 등 현안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해 공장이 조기에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lee@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해남~제주 카페리 '로얄스타호' 오늘 취항

#### 2시간 30분 소요...제주 보육원생 초청 두륜산 탐방도

씨월드고속훼리(주)는 29일 오후 우수영항에서 해남~제주 간 초쾌속 카페리 '로얄스타호' <사진>취항식을 연다.

이혁영 대표이사 등 씨월드고속훼리 임원들은 제주 첫 취항일인 30일 제주지역 보육원생 60명을 초청해 함께 두륜산 케이בל카로

두륜산 정상을 찾은 예정이다. 또 제주 호남항우회원 30여 명도 초청을 받아 여객선 편으로 해남을 방문한다.

로얄스타호는 304t급으로, 여객 574명, 차량(승용차 기준) 76대를 동시에 수송할 수 있다. 속력은 30노트(시속 56km)이며 해남에서

제주까지 2시간30분이 걸린다. 매일 1회 왕복 운항하며 출항 시간은 제주 오전 9시, 해남 오후 2시 40분이다.

고속훼리는 국내 최대·최고·최호화 크루즈 여객선인 2만4000t급 '씨스타크루즈호'를 목포~제주 항로에 투입, 연간 80여만명을 수송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전라선 KTX 운행 횟수 늘려야

### 이용객 많아도 겨우 12회...경부선 154회와 대조

전라선 KTX의 이용객이 많은데도 운행 횟수는 경부선과 호남선 등 다른 노선보다 훨씬 적어 증편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철도공사가 김성주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말 운행횟수에서 경부선은 154회(73%), 호남선은 44회(21%), 전라선은 12회(6%)로 경부와 호남선에 편중돼 있다.

그러나 공급과잉 수요 승차인원을 비교한 결과 좌석 점유율은 전라선 104%이 기록한데 반해 경부선 79%,

호남선은 68%에 그쳤다. 전라선은 이용객은 많은데 반해 상대적으로 운행횟수가 적음을 보여준다.

또 KTX 하행선 마차도 경부선은 23시30분, 호남선은 21시40분인 반면 전라선은 19시20분으로 일찍 끊겨 전라선 이용객의 불만이 크다.

김성주 의원은 "KTX 전라선 증편과 하행선 마차 시간을 조정하고 현재 300석 규모의 차량을 900석 규모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 전북

# 정읍 한약재 '지황' 특화작목 육성

### 시, 칠보농협과 계약재배...매실·고사리는 유망작목 선정

정읍시가 예부터 최고의 한약재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쳐온 '지황(용봉)'을 지역대표 특화작목으로 육성한다.

또 고사리(입암)와 여주(정우), 매실(북면)은 유망작목으로 육성해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5여여원을 들여 읍면특화작목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별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작목을 발굴해 생산기반 조성, 생산·가공·유통·판매 전략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도 선정된 지황은 정읍이 자랑하는 명산품으

로 손꼽힌다.

특히 지황 주산지인 용봉면 일대는 물 빠짐이 좋고 거름기가 많은 지질 특성상 생지황의 최고 작지로 꼽힌다.

지난 1992년 농림부 지황 주산 단지 지정 당시에는 전국 생산량의 70%(45ha)를 점유할 정도로 전국 제일의 지황 주산단지로 자리매김해왔다.

중국어 한약재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지황은 칠보농협과 계약재배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작목으로 각광받고 있다.

시는 지황을 지역대표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다수확, 생

력기계화, 2기가 등 실증시험 연구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 용봉 지황 재배면적은 모두 15.5ha로 40여 농가가 생지황연구회를 구성, 생지황을 생산해오고 있다.

시는 또 친환경고사리 생산으로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를 꾀할 방침으로 내달 중 신규로 4.2ha의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에 나섰다.

또 고품질 여주 생산 및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에도 적극 나설 방침으로 신규 참여농가 생산하루스 덕 설치 지원, 고품질 건 여주 생산 병풍 계승조건기 설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군산 철새조망대·생태습지 활용 생태체험 등 환경교육 주도한다

### 군산시-한국환경교육연구소 업무협약

군산시가 27일 철새조망대와 생태습지를 활용한 생태환경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 한국환경교육 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달 철새생태관리과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철새를 주제로 한 생태농촌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군산시와 한국환경교육연구소는 공동으로 환경부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교육도 신청했다.

이들 양기관은 철새조망대의 전시장 구경과 사진 촬영 등에 국한된 방문 프로그램을 보완해 어린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체형과 만들기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 학습과 표현의 균형성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향후 초등학생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주말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군산시 철새조망대는 좀 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며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환경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철새와 자연생태가 어우러지는 환경교육의 산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국익기자·전북취재본부장



**32년간 바다 지키 군산해경 267함 퇴역** 32년간 바닷길을 누빈 군산해양경찰서 250t급 경비함인 267함이 28일 퇴역했다. 267함은 1981년 9월 경남 미산에서 건조돼 인천·군산 해역에서 81만여km를 운항했다. 이는 지구 20바퀴 이상을 돈 거리다. /연희뉴스

## 단신

### 전북 귀농귀촌학교 등 2곳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정읍시 전북귀농귀촌학교 영농조합법인과 한국전통예절문화원 전북지부가 전라북도에서 지정하는 신규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됐다.

또 유기농비건, 두레아미, 알콩달콩가게가 1년차 재심사 과정을 통과하여 예비사회적기업에 재선정됐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6일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서 교부와 함께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날 김시장은 신규지정 및 재지정 기업대표들에게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동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받기 위한 준비과정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이번에 신규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전북귀농귀촌학교는 도시민 중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고창군, 상반기 명예 읍면장 14명 위촉

고창군은 28일 군정에 대한 조인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관내 농어업분야 대표 및 사회단체장 14명을 2013년 상반기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명예 읍면장은 하루 동안 주민상담 및 의견수렴, 관내 주요 사업장과 불우 소외계층 방문 등

일선행정을 몸소 체험했다. 1일 명예 읍면장에는 고창을 유제균, 고수면 류영배, 아산면 오재형, 무장면 황진중, 공음면 전한웅, 상하면 김대자, 해리면 강영철, 성수면 정유술, 대산면 탁정연, 심원면 안준현, 흥덕면 김익중, 상내면 이재현, 신흥면 이강희, 부안면 조형운 등이 선정됐다. /고창=강철수기자 knews@

### 전주보건소, 모유수유시설 6곳 설치

전주보건소는 아기를 동반한 민원이 마음 놓고 수유와 민원처리 가능하도록 민원인 방문 주유기관 6개소에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모유수유시설 설치가 완료된 주요 기관은 전주시청, 전주보건소(완산·덕진 예방접종실, 평화보건지소),

덕진구청 및 이용민원이 가장 많은 서신 도서관 등이다. 시 산하기관의 모유수유시설 설치기관은 총 41개소로 늘었다. 새롭게 설치된 모유수유실은 편안한 수유 소파, 아기침대, 수유쿠션, 잡지꽂이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 전북 119안전체험관 내달 10일 개관

체험을 통해 각종 재난과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전북 119안전체험관이 내달 10일 공식 개관한다.

28일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체험관은 임실군 임실을 이도리의 9만 8154㎡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전체면적 6714㎡ 규모로 건립됐다. 재난종합체험동과 위기탈출체험동, 어린이안전마을 등 3개 시설을 갖추고 모두 40여 가지의 재난과 사고를 체험해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